

“ 정의란 무엇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여호와 의 종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방에 정의를 가져올 것을 선포하셨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은혜와 용서를 가져온 분으로만 알고 있으나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를 찾고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 아모스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가 위대한 글을 썼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으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는데 있다. 정의 실천을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정의 실천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선지자 미가는 선포했다.

정의와 인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인자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동정을 말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의 행동 배후에는 인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의를 행해야 한다. 구약에 200 번 이상 나오는 정의라는 말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면을 하거나 형벌을 줄 때 종족,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벌과 사면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의는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든지 그 권리를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특히 오늘날엔 탈북난민,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결손가정의 자녀들, 장애인, 힘없는 노약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방어자)이시라”(시 68:4-5) 하나님은 자신을 힘없는 자와 동일시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신다. 고대사회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정의라 비웃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그 사회의 엘리트 즉 왕 제사장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힘없는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도와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욥 29:12-17) 하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관용과 공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너그럽게 주는 것은 자비요 동정 또는 구제지 정의는 아니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구제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선택적 활동일 뿐이다.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너그럽게 남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가르치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다. 너그럽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불의라는 것이다. 나만 혼자 내 떡 덩어리를 먹었고 고아와 과부를 못 본 체 했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 없을 때 못 본 체했던가. 옳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삶은 정직 공평 그리고 관용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라면 특히 아담 이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너그럽게 실천해야 한다. 자력 구원 능력 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반항해야 한다. 이 정의는 의를 옷으로 입듯이 겉옷과 모자같이 항상 내 몸에 함께 있어야 한다. 정의 실현의 기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 도와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여 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1362호] 2013년 4월 13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5:1-4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According to the Scripture(2)” Rev. Euichang Kim
* Hymn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강해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해정(러시아), 하창범(현미선(일본), 김낙형-오정혜(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리, 수비쓰,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록, 수리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만(홍성인(필리우),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카리)
--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대한예수교 장로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 서울교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SEOUL PRESBYTERIAN CHURCH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이종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Lee Jong-Yun, Ph. D., D.D., D. D. </td> </tr> </table>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부드러운 마음 ”

■ 겔 36:26

구원받은 증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사람의 증거는 부드러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담 책, 상담의 근간이 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욥기서 일 것입니다. 옳은 자신의 인생에 직면하면서 고난은 죄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고 죄 없는 의인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자신의 의를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버리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은 자신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의(義)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회복됩니까?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스스로 죄인 됨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발견했을 때 옳은 회복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고 책망은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1.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외형적인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영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자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최고의 학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자신의 신분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빌 3:7-9)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정욕적인 일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불의한 재물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2.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겔 36:25) 모호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 답답한 현실 앞에서 성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정결케 하는 회개운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속적인 가치, 자신만이 깨끗하다고 하는 독선, 우상처럼 여겨온 자신의 의와 교만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겔 36:26)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배척되고 버림받았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용서할 때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멸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며 버리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배척 당하고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원수를 포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용서할 이유나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하는 것이 기독교 사랑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를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먼저 용서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맺는 말

새 마음, 부드러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때론 무거운 짐을 주시지만,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주시기 때문에 그 짐을 지는 자에게는 가볍게 하는 능력을 겸하여 주십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참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성도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용서하고 하늘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전채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5(감사절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88(30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1:1-3, 인 도 자
 마18:19-20, 요16:24, 히10:24-25...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추수감사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종윤 목사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405(45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은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교회설립28주년 / 추수감사찬양예배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전채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46:1-2 인 도 자
 찬 송 587(306) 다 함 께
 기 도 최형열 장로
 성 경 수 6:20 인 도 자
 시명자대회 결과보고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무너진 여리고성” ... 설 교 자
 특별찬양 가브리엘찬양대
 * 찬 송 62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주성숙 권사
 성 경 막 7:1-2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진짜와 가짜”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새벽기도회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추수감사절 찬양으로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최형열 장로, 지휘: 백경화 권사)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 권사회 월례회 / 24일(주) 오후 3시 30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2020년도 목회정책협의회 / 29일(금) 오후 7시 104호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교회설립기념주일추수감사절 /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28주년 및 추수감사절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 세례식 신청 마감 / 12월 세례식이 12월 15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12월 1일(주)까지 문답총정리는 12월 8일(주) 오후 1시에 105호실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2월 8일(주) 오후 2시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오병호(피부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12명	214명	200명	1,226명	118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1/1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17일	헌 금	25,682,100	
	찬양운영비		50,000
	교회학교운영비		434,800
	선 교 비		300,000
	구 제 비		300,000
	행 사 비		2,742,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600,000
	복리후생비		163,300
	통 신 비		728,750
	수도광열비		958,000
	차량유지비		1,399,400
	소모품비		517,500
	환경유지비		71,800
	수선유지비		464,000
	식당운영비		1,351,120
	합 계	25,682,100	10,3306,70